

‘젊은피’ 변준수, 김민재 파트너 도전... “터프한 수비가 장점”

K리그1 광주FC의 핵심 수비수
동아시안컵 데뷔 이후 재발탁
“전진 패스·롱 패스도 정확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핵심 수비수 변준수(24)가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국가대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내달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 9월 A매치 2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9월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윌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을 상대한 뒤, 10일 오전 10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격돌한다. 지난 6월 A매치를 통해 북중미행을 확정된 한국은 이번 9월 A매치 전선 2경기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준비에 돌입한다.

홍 감독은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 등 기존 멤버들뿐 아니라 정상빈(23·세인트루이스), 엔스 카스트로프(22·뮌헨글라트바흐) 등 그동안 부르지 않았거나 첫 발탁인 새 얼굴들을 승선시키기도 했다.

중앙 수비진의 변화도 크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를 제외하면, 중앙 수비수 전원이 A매치 10경기도 소화하지 않은 젊은 피다.

기존 자원인 김영권(35·울산 HD), 권경원(33·FC안양), 조유민(29·샤르자) 등을 대신해 변준수, 김태현(25·가시마 엔트러스), 이한범(23·미트윌란), 김주성(25·산프레체 히로시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 감독은 “월드컵 예선에선 안정적인 부분이 중요했지만, 이제부터는 검증 단계”라며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은 대표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었다. 1년 뒤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대거 뽑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 멕시코가 홈 이점이 있는 강팀이다. 그들과의 피지컬,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라며 “월드컵 본선에서 얼마나 빠른 공수 전환을 할지도 이번 평가전에 적용하려고 한다. 또 동아시안컵 때 사용한 스리백 전술도 테스트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 9월 A매치는 주전 자원인 김민재와 파트너를 이룰 선수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될 거라고 시사했다.

전부 각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변준수는 자신의 장점을 터프한 수비와

정확한 패스라고 밝혔다.

변준수는 지난 2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부천FC1995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2차전을 풀타임 소화하며 팀의 2-1 역전승에 기여했다.

20일 1차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던 광주는 합계 스코어 4-1을 기록, 팀 사상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에 올랐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가졌던 그는 코리아컵 우승까지 도전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변준수는 “국가대표팀은 굉장히 영광인 일이다. 올해 감독님, 코치님, 좋은 선수들과 뛰면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

어서 스스로에게 뿌듯하기도 하다”며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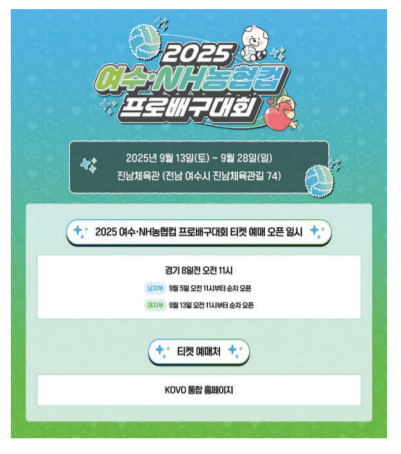
자신의 강점을 묻자 “터프하고 강하게 수비해서 상대 공격수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게 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으로는 빌드업 상황에서 전진 패스나, 롱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작년에는 (소속팀의 이경호) 감독님이 ‘항상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자신이 있었는지 오버해서 낮은 확률에 (도전을) 시도하다가 미스를 많이 내곤 했었다”며 “이제는 애매한 상황을 구분하며 실수를 줄였다. 그런 것들 덕에 좀 성장한 것 같다”며 웃었다.

프로배구 컵대회, 최초 여수 개최... 9월5일부터 예매 시작 해외 구단 초청해 남녀부 각각 8개 구단 격돌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이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9월13일 남자부 개막을 시작으로 21일에 시작하는 여자부까지 막을 올릴 준비를 모두 마쳤다.

남녀부 각 8팀씩 총 16개팀이 참여하는 이번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녀 각 1팀씩을 초청해 자웅을 겨룬다. 남자부에서는 태국의 나콘랏차시마, 여자부에서는 베트남의 득지양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나콘랏차시마는 24~25시즌 리그 1위를 비롯해 지난 6월 현대캐피탈이 참가했던 2025 윈스트라이크 인비테이셔널에서 1위를 차지한 팀으로 태국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완차이 램과이즈와 리베로 타나팻 차룬수이 속해 있다.

득지양은 지난시즌 리그 2위, 2025 아시아클럽 챔피언스리그 5위에 올랐으며,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리터루엔과 리베로 레티엔이 소속돼 있다.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남자부는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이 A조에 속해 있고,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한국전력, 나콘랏차시마는 B조에 묶였다.

여자부는 현대건설, GS칼텍스,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이 A조, 정관장,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득지양이 B조에서 경쟁한다.

경기장 좌석은 1·2층 지정석과 3층 지정석/비지정석으로 구성돼 있다. 티켓 가격은 평일과 주말이 상이하며, 티켓 구매는 각 경기 당일을 기준으로 8일 전 오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13일 경기는 9월 5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여수시민과 학생, 경로/장애인/미취학 아동은 평일 3층 비지정석에 한해 2000원이 할인된다. 또한 현장 구매를 위한 매표소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운영하며,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3층 지정석 일부는 현장에서만 판매한다.

좌석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OVO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티켓 예매 및 단체 예매 관련은 티켓링크 콜센터(1588-7890)에 문의하면 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리안간 적용, 세대 전용 창안식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입 운영 3년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입 GS건설 | (주)원형/건설 | HDC민간사업개발

손흥민, 다저스서 생애 첫 시구...완벽 스트라이크에 ‘환호성’

다저스 vs 신시내티전 앞서 시구...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손흥민이 미국프로야구(MLB) LA 다저스의 초청으로 생애 첫 시구에 나섰다.

손흥민은 28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2025 MLB 경기에서 앞서 시구를 진행했다.

마운드에 등장한 손흥민은 본인을 상징하는 등번호 ‘7번’, ‘SON’이 새겨진 유니폼과 LA 다저스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손흥민이 던진 볼은 스트라이크존에 정확히 안착했다. 이번 시구를 위해 동료들과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시구를 마친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인사했고, 시포를 맡은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후 손흥민은 다저스의 캐치프레이즈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을 외치며 경기 시작을 알렸다.

프로 스포츠간 교류가 활발한 미국 무대이기에 가능한 뜻깊은 자리였다.

다저스 팬들은 완벽한 시구를 선보인 손흥민에게 환성을 보내며 미국 무대 입성을 환영했다.

MLB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 FC의 손흥민이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5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서 시구하기 전 연습하고 있다.

정을 통해 손흥민의 시구 소식을 전하며 “슈퍼스타 축구선수 손흥민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던졌다”고 공유했다.

올여름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에 입단했다. 오랜 기간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한 손흥민의 합류에 LA 전역이 들쭉했다.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

(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이 LAFC SNS 계정을 찾아 손흥민을 환영했다.

손흥민은 LAFC 입단 후 빠르게 MLS 무대에 녹아들었다.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전(2-2 무)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2-0 승)에서 첫 도움을 기록했다. 24일 FC 탈라스(1-1 무)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문체부, 내달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서 영원히 퇴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규범으로 잡히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차단할 계획이다.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도 보완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 실업팀 847개(이상 2024년 기준), 전국 규모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